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윤원 원장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안전성 확보', '글로벌 원자력안전 선도', '원자력안전 국민신뢰 제고', 'KINS인으로서의 자부심 견지'가 박윤원 원장의 방침이자 KINS의 비전이다. 글로벌 원자력 안전의 중심역할을 자임한 박윤원 원장의 경영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Q 30년 가까이 봉직하시면서 최고수장이 되신 비결이 있다면**

**A** 저는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매사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 처음 이 기관에 들어왔을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KINS에 입사해 첫 번째 업무가 꼭 하고 싶었던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직, 유학 등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시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분이 저에게 ‘인생도처유청산(人生到處有青山)’이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불만스러운 눈앞의 현실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일해왔습니다. 이후부터는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았고, 다양한 일을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KINS는 개개인이 자기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 조직입니다. 그만큼 조직원의 의견이 기관의 의사결정과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INS 직원들은 능력과 경력에 따라 중간관리자와 국내외 주요 회의의 좌장 등을 맡으며 의사조정 및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키우게 되고, 각종 경영관련 TFT 참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INS는 다른 연구소 조직들에 비해 직원들의 기관경영참여 기회가 많으며, 동시에 자연스럽게 경영 수업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TFT 활동을 많이 하면서 기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망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는 과정을 자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과정들 하나하나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의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Q 취임식에서 밝히신 KINS 비전 의미**

**A** 저는 원자력안전을 위해 힘써 온 그간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의 비전 2020에 따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원자력 안전의 중심’으로 도약해 나가는 밑거름을 놓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개인별 전문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력에 대한 분야별 목표 및 이행 계획에 따른 규제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업무를 통해 생성되고 수집되는 규제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규제심의회 기술검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규제결과물의 품질을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박윤원**

- 1982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학·석사
- 1991 프랑스 파리 에콜쌍트랄 기계공학 박사
- 1990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 200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공학연구실장
- 200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규제부장
- 20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원자력안전학교장
- 20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원자력안전협력단장
- 現 제9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Profile

둘째, 국제무대에서 주도적 활동을 통해 글로벌 원자력안전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IAEA, NEA 등 국제기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안전 네트워크에서 리더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NRC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후발국 안전규제 인프라 지원 사업에서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및 개인별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별 어학교육지원 확대, 국제기구 파견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불필요한 규제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며,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유기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경영시스템을 보완하고, IT시스템 확충을 통해 상호 업무시너지가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및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분석을 통해 고객만족 경영체제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전문성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한편 신뢰도 제고에도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넷째, 비전과 전략을 전 직원과 공유하여 직원 모두가 KINS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경영을 이루어나겠습니다. 규제역량과 업무 성과에 걸맞는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내부직원의 만족도 조사를 강화하고 간부와 직원 간의 신뢰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Q 기관 경영방침

**A** KINS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국토환경을 보전 하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를 과학화·합리화하고, 국가 방사선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해 나가며, 원자력 사업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사선 재해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INS는 설립 이후, 전 임직원들이 한 몸으로 노력하여 국제적인 원자력안전 전문기관으로 성장하였으며, 우리나라가 국제 원자력사회에서 안전의 모범국가로 평가받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KINS의 장기 비전인 ‘글로벌 원자력안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규제 역량과 더불어 미래 지향적인 기관 경영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기관 경영 환경은 항상 변화합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등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과 방법은 달라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 조직의 미래와 발전을 생각하며 토론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KINS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정서를 존중하며, 우리 기관에 대한 신뢰가 곧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명감으로 신뢰를 제1의 목표로 지향하는 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Q 원자력 안전에 대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에 대한 견해**

**A**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INS는 2002년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NSIC)를 설치하고, 원자력안전정보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찾고, 부족한 자료는 손쉽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규제 업무를 주제로 하는 원전지역민과의 현안 토의와 협력회의, 반핵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열린 이용자 포럼 등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국내 4개 원전 지자체 민원실에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정보검색대가 위치하여,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정보공개 요구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이에 올해는 기관과 NSIC 홈페이지를 안전 정보의 투명성,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전지역 주민 대상 안전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의견수렴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 지역과의 협력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규제전문기관인 KINS의 신뢰성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Q KINS 또는 원자력안전 분야의 최대현안 및 해결방안**

**A** 올해 11월 수명(30년)이 만료되는 월성 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 허용 여부 결정을 위해 ‘계속운전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수행 중입니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만큼 경년열화, 수명평가, 환경영향 등에 대한 총체적인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추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 개선사항도 검토하여 철저하게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Q 세계최고의 규제역량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A**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30여 년간 축적한 규제기술과 경험을 더욱 배양하기 위해 2004년도에 ‘원자력 안전학교’를 개설한 바 있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전파하기 위하여 IAEA와 협력 하에 2008년 1월에는 세계 최초의 ‘국제원자력안전학교’를 개설하였습니다.

국제원자력안전학교에서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과정은 크게 3가지로, 직원교육, 일반인 대상 원자력안전 체험학습 교육 그리고 신규원전 도입 예정국들의 안전규제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육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KINS의 규제역량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KINS가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규제 분야별 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입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원자력안전규제 체제 변경에 따른 KINS의 규제기술력 제고가 더욱 필요하며, 국외적으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원자력안전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INS도 원자력안전에 대한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규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로 원전 현장 규제능력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신형 원전에 대한 인허가 관련 교육, 규제전문분야별로 단계별 교육프로그램(기본 공통과정, 전문공통과정, 전문고급과정, 심화과정)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교육이행 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등 안전규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Q 가동원전/건설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점 추진 사항**

**A**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 점검 및 강화 활동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속하고 철저한 국내 원전 안전점검(2011. 3. 21 ~ 5. 3)을 통해서 50개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였고 사업자인 한국수력 원자력으로 하여금 반기별로 개선사항의 이행실적 및 이행계획을 규제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관련 IAEA 특별회의가 8월에 예정되어 있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해외 후쿠시마 후속조치사항을 국내 원전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등 한 차원 높은 안전 규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신규 건설 원전에 대해서는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유로 설치 등 33개 대책을 설계 및 건설단계부터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IAEA Action Plan과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결과 제시된 중대사고 제도화 및 원전 해체계획 수립 등 22개 권고 및 제안사항을 적기에 이행하여 국제적 원자력 안전성 강화요구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Q 개발 중인 안전규제 관련 기준·기술, 정책

**A**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법령 체계에는 2011년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전의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나누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새로운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청으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둘째, 이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도 같은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규제독립과 관련한 3건의 법률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였고,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 안전기준의 정비에 따른 사항을 국내에 반영하고, IRRS 수검 결과에 따른 국내 기준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전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안전기준의 개발과 제·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출과 국내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법령의 영문화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시설별 및 활동별 안전기준의 제·개정을 통해 최신 안전기준을 유지하고, 관리를 위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안전기준의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분야에서도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초의 법정계획으로써 역할을 할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으로 착수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 KINS가 주관연구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내 원전 안전성 강화,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혁신과 안전 역량 강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질적인 국가방사능방재체계 구축, 원자력 통제 및 핵비확산 체제 구축 등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 Q 인생철학이나 좌우명

**A** 제가 롤모델로 생각하는 분 중 한 분이 민족사관학교를 설립한 최명재 전 파스퇴르 유업 회장입니다. 그 분의 책에 ‘단검진일보(短劍進一步)’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검이 짧다고 불평하기보다는 검이 짧은 만큼 일보 다가서야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자력도 과거에는 미국, 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에서 기술을 수입하고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현재는 원전후발국들을 가르치고 원조를 제공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이 있게 된 것도 단검진일보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KEA